



KOSPI, 중요한 저항대 도달

1. 기술적으로 중요한 저항 도달

- KOSPI, 3,200~3,266pt 수준에 중요한 저항대 존재. 지난 1월 11일 연중 고점대 형성 시 큰 폭의 변동성과 높은 거래대금 수반해 이 지수대에서 매물 부담 클 전망
-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이전 고점대 저항 근접. 이미 120일 이평선 수준까지 조정 후 반등이라 전고점 저항 강할 전망

2. 아직은 안정적인 상승 심리

- 최근 KOSPI 상승 과정에서 거래대금 15조원 수준 유지.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은 상승으로 오히려 안정적
- 옵션 내재 변동성으로 구하는 VKOSPI는 20% 하회하는 낮은 수준 유지. 장중 등락 폭이 커지는 모습 보이면 조정 가능성 높아질 전망

3. 소형주 상대 강도의 시사점

-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120일 이평선 수준 도달해 반등 가능. 120일 이평선 이탈해도 이전과 같은 하락 추세 형성 가능성 낮음
- KOSDAQ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KOSPI 소형주 지수가 대형주 지수에 비해 강한 모습.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대형주가 강세를 보임. 장기 상승 추세 진행 과정에서 소형주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할 때 중장기 고점대 형성 가능



주식시장 투자전략

1. 기술적으로 중요한 저항 도달

KOSPI 가 3일 연속으로 장 중에 3,200pt 를 넘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3,200pt 를 하회한 가운데 마감되었다.

전일 KOSPI 종가가 3,198.84pt 로 3,200pt 에서 2pt 도 차이가 나지 않아 언제든 이 지수대를 넘어설 수 있지만 3,200~3,266pt 수준의 저항은 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1일 KOSPI 가 장 중 고점인 3,266pt 를 기록했을 때 장 중 등락 폭은 5.4%였고, 거래대금은 44조원대였다. 4월 중 장 중 고점에서 저점까지 상승률 차이의 평균 값은 0.78%이고, 거래대금은 14.95조원을 기록했다. 1월 11일은 4월 중 평균 장 중 등락률의 7배 정도의 장 중 움직임이 있었고, 거래 대금은 3배 정도를 기록한 셈이다. 이는 당일에 그 만큼 강한 분출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정도의 매물이 쌓여 있다는 의미로 매우 강한 저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상승해서 3,200pt 를 넘어설 수도 있지만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증시도 강세를 기록하면서 S&P500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 중이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고점의 저항에 도달한 모습이다. 작년 10월에도 전고점 저항에서 조정을 받은 경험도 있고, 이미 120일 이평선 수준까지 조정 후 반등이라 이전 고점대를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차트1] KOSPI 일봉, 단기 상승세 진행 중인 가운데 박스권 저항대 도달. 3,200~3,266pt 수준의 저항은 강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나스닥 종합지수 일봉, 120일 이평선 수준까지 하락한 후 반등 국면 진행되면서 전고점 저항 근접. 중요한 저항 도달해 돌파 과정에서 공방 예상됨.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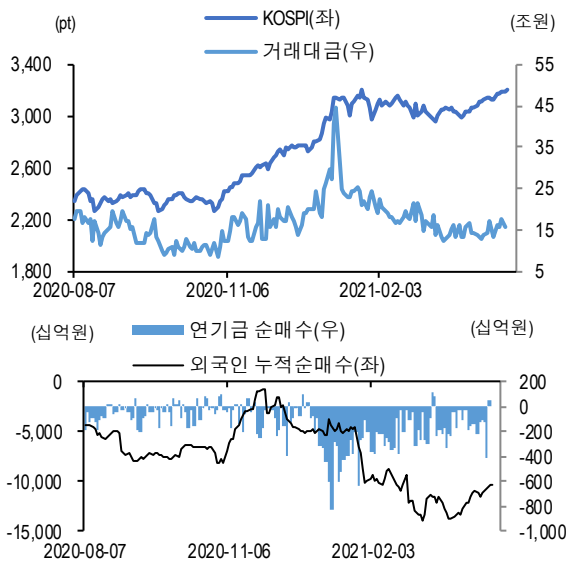
2. 아직은 안정적인 상승 심리

3월 24일 이후 진행된 KOSPI 상승 국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거래가 실리기 마련인데 15조원 전후한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주가 상승 과정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것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래가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상승하는 것은 에너지를 크게 소비하지 않으면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차트3]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수급상 특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형성한 가운데 연기금 매도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거래가 증가한다면 지난 1월 초와 같은 분출이거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부담이 되는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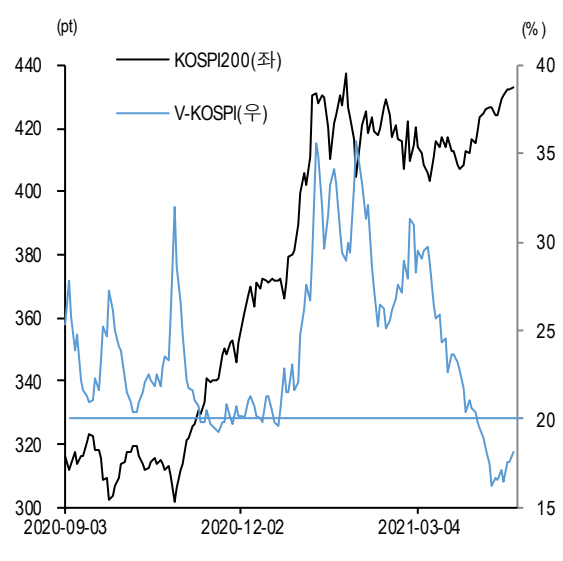
특히 옵션 내재변동성으로 구하는 VKOSPI 가 20%를 하회하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시장 심리도 안정적인 모양이다. 어떤 식이든 장 중 변동 폭이 커진다면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상관 없이 고점대 형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즉,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단기 상승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차트3] KOSPI 거래대금과 외국인 누적 순매수와 연기금 일간 순매수 추이. 거래대금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KOSPI 단기 상승세 형성.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VKOSPI 와 KOSPI200, 변동성 수준 낮은 상황에서 KOSPI200 지수 상승. 아직은 시장 심리 안정적. 변동성 확대 국면 도래 시 조정 가능성 높아질 전망.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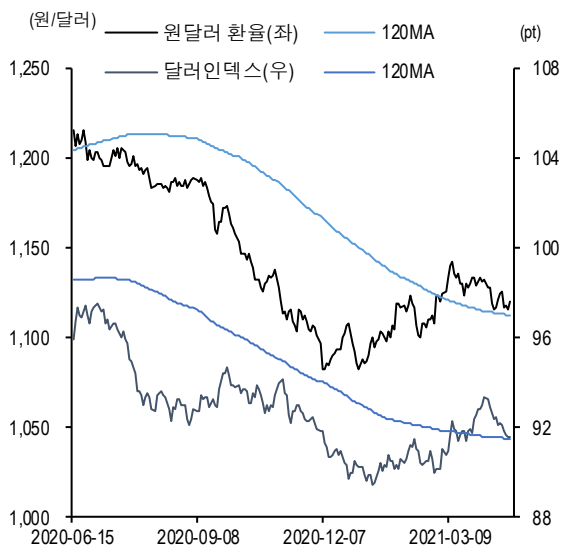


3. 소형주 상대 강도의 시사점

KOSPI 가 박스권 상단선 저항에 도달한 것처럼 환율 관련 지표들도 중요한 지지대에 도달한 모양이다. 달러화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지난 3월 중에 장기간 하회하던 120일 이평선을 회복하고 상승했지만 다시 조정국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KOSPI 가 단기 상승세를 형성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 환율 지표들이 120일 이평선의 지지대에 도달한 가운데 지지 시도에 나서고 있어 반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120일 이평선이 완만하게 하락 중이라 지지에 실패하고 단기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120일 이평선을 한 달 가량 상회했기 때문에 다시 이탈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추세적인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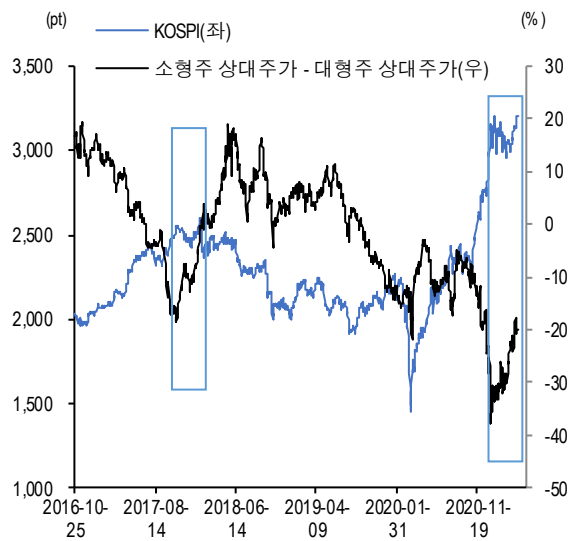
한편 최근 KOSDAQ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KOSPI 에서도 소형주 지수가 대형주 지수에 비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가 진행될 때에는 대형주 지수의 상대 강도가 강한데, 소형주 지수의 상대 강도가 강한 경우 시장 전반적인 상승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차트6]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2017년 말에도 하락하던 소형주 상대 강도가 상승하기 시작한 가운데 KOSPI 가 중장기 고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앞서 지적했듯 아직까지 KOSPI 의 단기 상승세는 유효한 상황이지만 2018년 초와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차트5]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120일 이평선의 지지대 도달해 반등 가능성 타진할 수 있음.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하락추세 지속 가능성은 낮은 상황.



자료: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2015년 초 기준(100) 대형주 지수 상대주가에서 소형주 지수 상대주가 차감한 상대 주가 괴리도와 KOSPI. 장기 고점대에서 소형주 상대주가 강해지는 모습.



자료: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